

I. 서론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싸워서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2차 선교여행에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심히 다투고 헤어진다.

☞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상상력을 발휘하여 대화로 구성해 본다.

이들이 다투고 헤어진 후 바나바의 이름은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바울은 안디옥교회의 축복을 받고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으로 간다. 두 사람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일치했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 하나가 되지 못해서 다투었다. 이들이 다투게 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II. 본론

첫째, 이들이 심히 다투고 헤어지게 된 것은 성향과 기질의 차이 때문이었다.

바울은 과업중심의 성향을 가진 사람인 반면에 바나바는 관계중심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기질과 성향이 다른 사람이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어 잘 지내기가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헤어진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 기질과 성향이 다른 문제로 서로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세 가지

1. 나하고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정죄하지 말라.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 다투는 제자들에게 똑같은 나뭇잎을 주워오라는 어느 랍비의 이야기

2. 나 자신의 성향과 기질을 파악함은 물론 함께 지내는 이웃 사람도 잘 알아야 한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자기를 알고 상대방을 알았다면 그렇게 심하게 다투지 않았을 것이다.

3. 성향과 기질에 관한 문제라면 양보하고 타협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

바나바와 다투고 난 몇 년 후 바울은 매우 성숙하여 유연한 사람이 된다(고전9:19-23). 그렇게 성숙하고 유연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다투지 않았을 것이다. 바나바도 지혜가 있었다면 바울에게 타협안을 제시했을 것이다. 성숙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성향과 기질의 차이를 극복하고 다투지 않는다.

둘째, 성향과 기질이 달라 다투더라도 다시 화합할 때를 대비하라.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어 헤어졌지만 서로 화해하고 교제했을 것이다.(고전9:6) 그들은 다투는 때 인신공격하거나 과거를 끄집어내어 다투지 않았다.

셋째,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도 포기하지 마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마가는 베드로와(벧전5:13) 바울에게(골4:10-11, 몬1:24, 딤후4:11) 인정받은 위대한 제자가 되었다. 이는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고 양육했기 때문이다.

III. 결론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빌 2:1-4)

통독

이번 주 통독 말씀

4/27(월)	4/28(화)	4/29(수)	4/30(목)	5/1(금)	5/2(토)
대하 19-22장	대하 23-26장	대하 27-30장	대하 31-34장	대하 35-스 2장	스 3-6장

QT

이번 주 QT 말씀

4/27(월)	4/28(화)	4/29(수)	4/30(목)	5/1(금)	5/2(토)	5/3(주일)
신 10:12-22	신 11:1-12	신 11:13-21	신 11:22-32	신 12:1-7	신 12:8-19	신 12:20-32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설교를 통하여 새롭게 깨닫거나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나누어 보세요.
2. 오늘 본문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개인의 성향과 기질이 다른 사람들끼리 다투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설명해 보세요.
3. 배우자 혹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 성향과 기질의 차이로 최근에 부딪히고 다투었던 적이 있으면 한 가지씩 나누어 보세요.
4. 자신의 성향과 기질이 배우자 혹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의 그것들과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말해 보세요.
5.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인가요?
6. 기질과 성향이 달라 불편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개선할 것인지 나누어 보세요.